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 귀중

# 스트레스 위험요인과 상담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보고서

2007. 9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2-7층  
 전 화 : 02-3014-0085  
 팩스번호 : 02-3014-0775  
 홈페이지 : [www.hrc.co.kr](http://www.hrc.co.kr)

##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3
1. 조사배경 및 목적	4
2. 조사설계	5
3. 조사내용	6
4. 응답자 구성	7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8
제 3 장. 조사결과	16
1. 자살에 대한 인식	17
1) 부정적 인식 -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17
2) 부정적 인식 -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	19
3) 부정적 인식 -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	22
4) 동정적 인식 -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4
5) 동정적 인식 -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	27
6) 동정적 인식 -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	29
7) 긍정적 인식 -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31
8) 심각성 인식 -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33
9) 예방가능성 인식 -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35
10) 관심수준 -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37
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40
1) 사회적 요인 - 경제적인 문제	40

2) 사회적 요인 - 사업이나 직장 문제	43
3) 사회적 요인 - 학교 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	46
4) 관계적 요인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문제	49
5) 관계적 요인 - 가까운 친구들과의 문제	52
6) 관계적 요인 -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 문제	55
7) 심리적 요인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	58
8) 심리적 요인 -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	61
9) 심리적 요인 -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64
<b>3.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 경험</b>	67
1)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과 자살 시도 경험	67
2)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	70
3) 관계적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	71
4)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	72
<b>4. 주변 사람들의 자살 인식</b>	73
1) 지인 중 자살자 유무	73
2) 지인 중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 유무	75

## 부록. 조사결과표 조사설문지

#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내용
4. 응답자 구성

## 1. 조사배경 및 목적

- 2005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중 4.9%가 자살임.
  - 성별로 볼 때, 남자는 5.9%, 여자는 3.6%가 자살에 의한 사망임.
  -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남.
- 1995년 통계와 비교할 때, 10년간 자살에 의한 사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95년 사망원인 중 자살은 9위였으나 2005년 사망원인 중에서는 4위임.
  - 1995년에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1.8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은 인구 10만명당 26.1%로 2.5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살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됨.
- 본 조사는 자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현황은 어떠한지 △스트레스 요인과 자살에 대한 생각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 2. 조사배경 및 목적

구 분	내 용
모집단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65세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추출	● 2006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기간	● 2007. 8. 31- 9. 1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3.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스트레스 위험요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li> <li>●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li> <li>●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li> <li>● 도움이나 상담의 대상</li> <li>●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li> </ul>
자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li> </ul>
자살관련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li> <li>●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li> <li>●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li> <li>● 도움이나 상담의 대상</li> <li>●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li> </ul>
주변 사람들의 자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 자살한 사람 유무</li> <li>●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 유무</li> </ul>

### 4. 응답자 구성

Base=전체	사례수 (명)	%
■ 전 체 ■ (1000)		100.0
○ 성별 ○		
○ 여 (500)	(500)	50.0
○ 남 (500)	(500)	50.0
○ 연령 ○		
○ 10대 (15-19세) (82)	(82)	8.2
○ 20대 (20-29세) (226)	(226)	22.6
○ 30대 (30-39세) (248)	(248)	24.8
○ 40대 (40-49세) (220)	(220)	22.0
○ 50대 (50-59세) (160)	(160)	16.0
○ 60대 (60-65세) (65)	(65)	6.5
○ 거주지 ○		
○ 강남/서초/송파/강동/강남구 (168)	(168)	16.8
○ 중구/영등포구/영등포구/영등포구 (324)	(324)	32.4
○ 기타 (350)	(350)	35.0
○ 학력 ○		
○ 중졸 이하 (119)	(119)	11.9
○ 고졸 (299)	(299)	29.9
○ 대졸 이상 (563)	(563)	56.3
○ 직업 ○		
○ 사무/관리/전문직 (223)	(223)	22.3
○ 영업/판매/서비스 (164)	(164)	16.4
○ 생산/기술/노무 (76)	(76)	7.6
○ 학생/기타 (51)	(51)	5.1
○ 주무직/퇴직/기타 (224)	(224)	22.4
○ 모름 / 무응답 (71)	(71)	7.1
○ 월 가 수 ○		
○ 99만 이하 (33)	(33)	3.3
○ 100 - 199만 (128)	(128)	12.8
○ 200 - 299만 (188)	(188)	18.8
○ 300 - 399만 (217)	(217)	21.7
○ 400 - 499만 (130)	(130)	13.0
○ 500만 이상 (187)	(187)	18.7
○ 모름 / 무응답 (117)	(117)	11.7
○ 경제수준 ○		
○ 중위 이하 (59)	(59)	5.9
○ 중위 이상 (716)	(716)	71.6
○ 모름 / 무응답 (208)	(208)	20.8
○ 종교 ○		
○ 불교 (306)	(306)	30.6
○ 기독교 (129)	(129)	12.9
○ 기타 (118)	(118)	11.8
○ 모름 / 무응답 (7)	(7)	0.7
○ 혼인상태 ○		
○ 혼인 (428)	(428)	42.8
○ 미혼 (629)	(629)	62.9
○ 기타 (15)	(15)	1.5
○ 모름 / 무응답 (9)	(9)	0.9

## 제 2 장

### 조사결과 요약

### 스트레스 위험요인과 상담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요약

◎ 자살에 대해서는 80% 내외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여론은 10% 이내에 불과함.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입장임.

-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말에 88.3%,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옳바르지 않다’는 말에 82.6%,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최악이다’라는 말에 71.9%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는 말에는 8.7%만이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함.

(단위 : %)

구분	내 생각과 같다	내 생각과 다르다	모름/ 무응답	계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88.3	10.8	0.9	100.0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옳바르지 않다	82.6	16.6	0.8	100.0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최악이다	71.9	24.9	3.2	100.0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8.7	90.1	1.2	100.0

-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는 53.1%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는 말에는 36.2%,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라는 말에는 32.5%만이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함.

(단위 : %)

구분	내 생각과 같다	내 생각과 다르다	모름/ 무응답	계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53.1	45.8	1.1	100.0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	36.2	62.0	1.8	100.0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	32.5	64.3	3.1	100.0

◎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자살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수준임.

-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라는 말에 77.7%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하여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87.6%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하여 예방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 하지만,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라는 말에는 50.4%만이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하여 실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내 생각과 같다	내 생각과 다르다	모름/ 무응답	계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77.7	19.7	2.5	100.0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87.6	9.5	2.8	100.0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50.4	48.6	1.0	100.0

◎ 3가지 스트레스 위험 요인 중 사회적 요인에서 초고위험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심리적 요인에서는 초고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임.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7.0%)', '사업이나 직장 문제(6.6%)', '학교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2.4%)'의 순으로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관계적 요인 중에서는 '가까운 가족 문제(4.8%)', '직장동료나

다른 사람 문제(1.3%)', '가까운 친구 문제(0.8%)의 순으로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2.2%)',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1.3%)',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1.1%)'의 순으로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초고 위험 군	고위 험군	위험 군	저위 험군	계
<b>사회적 요인</b>					
경제적인 문제	7.0	16.7	41.9	34.5	100.0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6.6	12.4	34.9	46.0	100.0
학교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	2.4	8.8	20.8	68.0	100.0
<b>관계적 요인</b>					
가까운 가족 문제	4.8	6.9	26.5	61.8	100.0
직장동료나 다른 사람 문제	1.3	3.4	22.9	72.4	100.0
가까운 친구 문제	0.8	1.6	10.8	86.8	100.0
<b>심리적 요인</b>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	2.2	5.3	29.1	63.4	100.0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	1.3	1.7	14.5	82.5	100.0
특별한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1.1	1.2	12.9	84.8	100.0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8.5%임.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2.4%, 가끔 있다는 응답은 16.1%로 전체 응답자 중 18.5%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24)	2.4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161)	16.1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318)	31.8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494)	49.4
모름/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이 있다는 응답자 24명 중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명임.
-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7명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명이며, 5명은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다른 사람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2명은 그 대상이 선생님과 정신과의사라고 응답함.
- 반면,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 5명 중 3명은 향후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유형일수록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특히, 심리적인 요인의 경우 초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간의 자살 생각 경험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요인에서 위험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교 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으며,

- 경제적인 문제에서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42.9%, 사업이나 직장 문제에서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43.9%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스트레스 요인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자살 생각 경험율(%)
경제적인 문제	초고위험군	(70)	42.9
	고위험군	(167)	22.3
	위험군	(419)	17.5
	저위험군	(345)	13.1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초고위험군	(66)	43.9
	고위험군	(124)	27.4
	위험군	(349)	16.9
	저위험군	(460)	13.8
학교성적이 나 진로 등의 문제	초고위험군	(24)	62.5
	고위험군	(88)	19.3
	위험군	(208)	17.4
	저위험군	(680)	17.2

- 관계적 요인에서 위험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62.5%, 직장동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61.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높게 나타나며,
- 가까운 가족 관계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50.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스트레스 요인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자살 생각 경험율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 때문	초고위험군	(48)	50.0
	고위험군	(69)	18.8
	위험군	(265)	26.8
	저위험군	(618)	12.5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	초고위험군	(8)	62.5
	고위험군	(16)	31.3
	위험군	(108)	36.1
	저위험군	(868)	15.7
직장동료나 다른사람들 때문	초고위험군	(13)	61.5
	고위험군	(34)	38.2
	위험군	(229)	17.9
	저위험군	(724)	17.0

- 심리적 요인에서 위험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전원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84.6%, 하루 종일 우울한 경우와 관련하여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63.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음.

스트레스 요인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자살 생각 경험율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가 있다	초고위험군	(22)	63.6
	고위험군	(53)	50.9
	위험군	(291)	31.4
	저위험군	(634)	8.2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다	초고위험군	(13)	84.6
	고위험군	(17)	29.4
	위험군	(145)	33.8
	저위험군	(825)	14.6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하는 경우가있다	초고위험군	(11)	100.0
	고위험군	(12)	100.0
	위험군	(129)	63.6
	저위험군	(848)	9.5

◎ 지인 중 자살자가 있다는 응답은 23.0%,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12.0%임.



## 제 3 장 조사결과

1. 자살에 대한 인식
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3.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4. 주변 사람들의 자살 인식

### 1. 자살에 대한 인식

#### 1) 부정적 인식 -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697)	69.7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186)	18.6
내 생각과 좀 다르다	(64)	6.4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44)	4.4
모름/무응답	(9)	0.9
합계	(1000)	100.0

#### 전 체

-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말에 대해, 69.7%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8.6%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8.3%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10.8%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중졸이하(91.5%) △생산/기능/노무직(92.8%) △월가구소득 100-199만원층(92.9%) △기독교(9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 수록 높으며, △고졸(12.1%) △영업/판매/서비스직(13.1%)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층(17.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가까운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69.7</b>	<b>18.6</b>	<b>88.3</b>	<b>6.4</b>	<b>4.4</b>	<b>10.8</b>	<b>0.9</b>	<b>100.0</b>
<b>학 력</b>									
중 졸 이 하	(119)	71.9	19.6	91.5	3.5	3.3	6.8	1.7	100.0
고 졸	(299)	67.6	19.3	86.9	7.1	5.0	12.1	1.0	100.0
대 재 이 상	(563)	71.3	17.5	88.8	6.5	4.3	10.8	0.4	100.0
모름 / 무응답	(19)	42.2	31.5	73.7	10.5	5.3	15.8	10.5	100.0
<b>직 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72.4	15.5	87.9	5.3	6.3	11.6	0.5	100.0
자 영 업	(164)	73.7	15.1	88.9	6.8	4.3	11.1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71.1	15.8	86.9	7.9	5.2	13.1	0.0	100.0
생산/기능/노무	(51)	72.6	19.6	92.2	5.9	1.9	7.8	0.0	100.0
주 부	(224)	70.0	20.1	90.1	5.8	2.7	8.5	1.4	100.0
학 생	(182)	65.3	23.7	89.0	6.1	4.4	10.5	0.5	100.0
무직/퇴직/기타	(71)	63.5	19.6	83.1	9.9	4.1	14.0	2.9	100.0
모름 / 무응답	(9)	33.1	22.1	55.2	11.3	11.2	22.6	22.3	100.0
<b>월 가구 소득</b>									
99 만 원 이 하	(33)	55.0	24.3	79.2	6.0	12.0	17.9	2.8	100.0
100 - 199 만 원	(128)	71.6	21.3	92.9	4.7	1.5	6.3	0.8	100.0
200 - 299 만 원	(186)	73.6	16.8	90.3	4.9	4.8	9.7	0.0	100.0
300 - 399 만 원	(217)	69.0	19.8	88.8	5.6	5.1	10.7	0.5	100.0
400 - 499 만 원	(130)	72.3	15.4	87.7	9.2	3.1	12.3	0.0	100.0
500 만 원 이 상	(187)	74.0	14.3	88.3	6.9	4.3	11.2	0.5	100.0
모름 / 무응답	(117)	57.4	24.8	82.1	8.5	5.0	13.5	4.4	100.0
<b>종 교</b>									
기 독 교	(306)	73.8	17.1	90.8	4.9	3.6	8.5	0.7	100.0
천 주 교	(129)	69.3	18.2	87.5	6.3	6.2	12.5	0.0	100.0
불 교	(118)	66.0	19.5	85.5	7.7	4.2	11.9	2.6	100.0
기 타 종 교	(7)	85.4	14.6	100.0	0.0	0.0	0.0	0.0	100.0
종 교 없 음	(428)	68.3	19.4	87.6	7.2	4.4	11.6	0.7	100.0
모름 / 무응답	(12)	49.7	24.9	74.6	8.5	8.5	17.0	8.4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 은 편	(684)	71.5	18.1	89.6	5.5	4.5	10.1	0.3	100.0
보 통	(261)	67.4	18.3	85.7	8.5	3.5	12.0	2.3	100.0
좋 지 않 은 편	(44)	61.5	24.8	86.3	6.8	6.8	13.7	0.0	100.0
모름 / 무응답	(11)	45.7	26.8	72.5	9.3	9.2	18.4	9.1	100.0

## 2) 부정적 인식 -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3〉 자살에 대한 인식 -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641)	64.1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186)	18.6
내 생각과 좀 다르다	(104)	10.4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62)	6.2
모름/무응답	(8)	0.8
합계	(1000)	100.0

## 전 체

-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에 대해, 64.1%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8.6%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2.6%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16.6%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신체·정신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10대(87.8%) 및 60대(88.9%) △강남3구 거주자(88.9%) △중졸 이하(87.4%) △주부(86.3%) △월가구소득 500만원이상(86.7%) △기독교(87.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신체·정신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20대(21.2%) △고졸(20.0%) △영업/판매/서비스직(19.7%)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층(20.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 자살에 대한 인식 -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올바르지 않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64.1</b>	<b>18.6</b>	<b>82.6</b>	<b>10.4</b>	<b>6.2</b>	<b>16.6</b>	<b>0.8</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47.7	40.0	<b>87.8</b>	9.6	0.0	9.6	2.7	100.0
20대	(226)	57.5	20.8	78.4	16.8	4.4	<b>21.2</b>	0.4	100.0
30대	(248)	65.1	18.4	83.5	9.2	6.8	16.1	0.4	100.0
40대	(220)	69.6	13.1	82.7	7.3	9.6	16.9	0.5	100.0
50대	(160)	68.3	13.7	82.0	10.0	6.2	16.1	1.8	100.0
60대 (60-65세)	(65)	74.3	14.6	<b>88.9</b>	4.8	6.3	11.1	0.0	100.0
<b>거주지역</b>									
도심 / 서북	(168)	66.2	17.2	83.4	9.0	6.4	15.4	1.2	100.0
동북부지역	(324)	64.1	16.9	81.0	11.9	6.5	18.4	0.6	100.0
남부지역	(350)	62.1	18.9	81.0	11.2	6.6	17.9	1.2	100.0
강남3구	(158)	66.1	22.8	<b>88.9</b>	6.8	4.3	11.1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65.3	22.2	<b>87.4</b>	6.7	5.9	12.6	0.0	100.0
고졸	(299)	60.4	18.5	78.9	12.6	7.4	<b>20.0</b>	1.1	100.0
대재이상	(563)	66.9	17.7	84.6	9.6	5.7	15.2	0.2	100.0
모름 / 무응답	(19)	31.8	20.8	52.6	21.3	5.3	26.6	20.8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68.7	15.7	84.3	9.8	5.8	15.7	0.0	100.0
자영업	(164)	65.9	17.0	83.0	7.9	9.1	17.0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63.1	17.2	80.3	13.2	6.6	19.7	0.0	100.0
생산/기술/노무	(51)	72.3	11.8	84.1	5.9	10.0	15.9	0.0	100.0
주부	(224)	68.9	17.3	<b>86.3</b>	7.1	5.3	12.4	1.3	100.0
학생	(182)	53.8	28.6	82.4	14.2	2.7	17.0	0.6	100.0
무직/퇴직/기타	(71)	56.5	15.4	71.9	16.8	8.5	25.3	2.8	100.0
모름 / 무응답	(9)	22.1	21.9	44.0	22.6	11.2	33.8	22.3	100.0
<b>월가구소득</b>									
99만원이하	(33)	63.9	15.2	79.1	14.8	6.1	<b>20.9</b>	0.0	100.0
100 - 199만원	(128)	56.6	23.9	80.5	10.9	7.8	18.7	0.8	100.0
200 - 299만원	(188)	65.7	17.4	83.1	11.0	5.9	16.9	0.0	100.0
300 - 399만원	(217)	66.5	16.5	83.0	11.1	6.0	17.0	0.0	100.0
400 - 499만원	(130)	65.5	16.7	82.2	9.4	8.4	17.8	0.0	100.0
500만원이상	(187)	71.6	15.1	<b>86.7</b>	7.9	5.4	13.3	0.0	100.0
모름 / 무응답	(117)	51.5	27.0	78.5	11.2	4.2	15.4	6.0	100.0
<b>종교</b>									
기독교	(306)	72.8	14.2	<b>87.0</b>	5.2	6.8	12.0	1.0	100.0
천주교	(129)	60.4	20.9	81.4	10.8	7.0	17.8	0.9	100.0
불교	(118)	68.0	16.0	84.1	10.8	5.1	15.9	0.0	100.0
기타종교	(7)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428)	58.4	22.0	80.3	13.6	5.6	19.2	0.5	100.0
모름 / 무응답	(12)	24.9	16.5	41.4	25.7	16.3	42.0	16.7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편	(545)	67.2	18.4	85.5	9.1	5.3	14.5	0.0	100.0
보통	(367)	60.8	20.4	81.1	10.1	7.9	18.0	0.9	100.0
좋지않은편	(84)	61.5	12.7	74.2	17.6	4.7	22.3	3.5	100.0
모름 / 무응답	(4)	0.0	0.0	0.0	50.5	0.0	50.5	49.5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편	(684)	69.1	16.0	85.1	8.5	6.4	14.9	0.0	100.0
보통	(261)	54.3	23.9	78.2	13.3	6.5	19.8	2.0	100.0
좋지않은편	(44)	49.9	27.5	77.5	18.0	2.3	20.3	2.3	100.0
모름 / 무응답	(11)	36.3	17.9	54.1	27.8	0.0	27.8	18.0	100.0

## 3) 부정적 인식 -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5〉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479)	47.9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240)	24.0
내 생각과 좀 다르다	(187)	18.7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62)	6.2
모름/무응답	(32)	3.2
합계	(1000)	100.0

## 전 체

-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라는 말에 대해, 47.9%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4.0%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71.9%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24.9%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강남3구지역(76.3%) △주부(79.6%) △기독교(79.4%) △기혼자(78.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20대(41.1%) △동북부지역(28.5%) △학생(35.7%) △종교없음(32.6%) △미혼자(3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47.9</b>	<b>24.0</b>	<b>71.9</b>	<b>18.7</b>	<b>6.2</b>	<b>24.9</b>	<b>3.2</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32.2	29.6	61.8	18.3	11.1	29.3	8.9	100.0
20대	(226)	34.1	23.5	57.6	29.1	12.0	41.1	1.3	100.0
30대	(248)	46.2	26.8	73.1	17.3	6.8	24.1	2.8	100.0
40대	(220)	53.7	23.0	76.8	16.8	3.2	20.0	3.2	100.0
50대	(160)	64.0	20.5	84.5	11.8	1.3	13.0	2.5	100.0
60대 (60-65세)	(65)	62.8	19.3	82.1	11.7	0.0	11.7	6.2	100.0
<b>거주지역</b>									
도심 / 서북	(168)	50.5	21.3	71.8	18.0	7.9	25.9	2.4	100.0
동북부지역	(324)	45.1	22.7	67.8	22.1	6.4	28.5	3.7	100.0
남부지역	(350)	48.7	25.0	73.7	17.0	5.2	22.2	4.1	100.0
강남3구	(158)	49.1	27.2	76.3	16.2	6.3	22.5	1.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54.9	27.2	82.2	11.2	3.3	14.6	3.3	100.0
고졸	(299)	52.7	18.8	71.4	16.8	6.3	23.1	5.5	100.0
대재이상	(563)	43.7	26.7	70.4	21.4	6.8	28.2	1.4	100.0
모름 / 무응답	(19)	53.0	5.2	58.2	15.7	5.3	20.9	20.9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43.8	29.9	73.6	18.8	7.2	25.9	0.4	100.0
자영업	(164)	56.1	18.1	74.2	17.8	5.5	23.3	2.5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48.6	19.8	68.4	23.8	5.2	29.0	2.7	100.0
생산/기술/노무	(51)	48.7	23.7	72.4	19.6	3.9	23.5	4.1	100.0
주부	(224)	56.4	23.2	79.6	15.1	1.3	16.4	4.0	100.0
학생	(182)	33.1	26.7	59.8	24.2	11.6	35.7	4.5	100.0
무직/퇴직/기타	(71)	50.8	22.4	73.2	11.4	8.5	19.8	7.0	100.0
모름 / 무응답	(9)	55.5	0.0	55.5	22.1	11.2	33.3	11.1	100.0
<b>종교</b>									
기독교	(306)	55.2	24.3	79.4	14.3	3.9	18.2	2.3	100.0
천주교	(129)	55.9	20.0	75.9	14.0	6.1	20.1	4.0	100.0
불교	(118)	51.0	26.4	77.3	15.1	3.4	18.4	4.2	100.0
기타종교	(7)	56.4	0.0	56.4	43.6	0.0	43.6	0.0	100.0
종교없음	(428)	39.1	25.1	64.2	23.9	8.7	32.6	3.3	100.0
모름 / 무응답	(12)	58.0	8.7	66.6	16.7	8.5	25.1	8.3	100.0
<b>혼인상태</b>									
미혼	(346)	35.5	25.2	60.7	22.8	13.0	35.8	3.5	100.0
기혼	(629)	54.8	23.4	78.2	16.8	2.4	19.2	2.5	100.0
기타	(15)	40.0	33.4	73.4	7.0	6.5	13.5	13.2	100.0
모름 / 무응답	(9)	55.5	0.0	55.5	11.0	11.3	22.3	22.2	100.0

## 4) 동정적 인식 -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 &lt;표7&gt; 자살에 대한 인식 -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159)	15.9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373)	37.3
내 생각과 좀 다르다	(238)	23.8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220)	22.0
모름/무응답	(11)	1.1
합계	(1000)	100.0

## 전 체

-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 대해, 15.9%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7.3%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53.1%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45.8%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신체·정신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으며, △여자(56.6%) △50대(60.1%) △자영업자(59.0%) 및 주부(60.1%) △천주교(60.5%) △기혼자(5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신체·정신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남자(49.3%) △20대(57.1%) △생산/기능/노무직(58.7%) 및 학생(53.1%) △불교(51.7%) △미혼자(54.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표8〉 자살에 대한 인식 -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15.9</b>	<b>37.3</b>	<b>53.1</b>	<b>23.8</b>	<b>22.0</b>	<b>45.8</b>	<b>1.1</b>	<b>100.0</b>
<b>성별</b>									
남자	(500)	16.7	33.0	49.7	22.7	26.6	49.3	1.0	100.0
여성	(500)	15.0	41.6	56.6	24.9	17.3	42.2	1.2	100.0
<b>연령</b>									
10대 (15~19세)	(82)	10.2	41.7	51.9	28.4	17.3	45.8	2.3	100.0
20대 (20~29세)	(226)	11.0	31.4	42.4	29.6	27.5	57.1	0.4	100.0
30대 (30~39세)	(248)	16.4	40.5	56.9	24.7	18.4	43.1	0.0	100.0
40대 (40~49세)	(220)	16.9	36.9	53.7	24.3	21.0	45.3	0.9	100.0
50대 (50~59세)	(160)	20.6	39.5	60.1	15.0	21.9	36.9	3.0	100.0
60대 (60~65세)	(65)	22.5	36.2	58.7	14.1	25.4	39.5	1.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18.8	38.9	57.7	20.3	17.8	38.0	4.2	100.0
고졸	(299)	18.9	34.0	52.9	20.7	25.1	45.8	1.3	100.0
대졸 이상	(563)	14.0	38.5	52.5	26.5	20.8	47.3	0.2	100.0
모름/무응답	(19)	5.3	41.9	47.2	15.6	31.9	47.6	5.2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14.0	36.8	50.8	27.2	22.1	49.2	0.0	100.0
자영업	(164)	25.4	33.5	59.0	21.4	19.6	41.0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20.0	31.5	51.5	22.3	26.2	48.5	0.0	100.0
생산/기술/노무	(51)	9.8	23.9	33.7	35.0	23.6	58.7	7.6	100.0
주부	(224)	16.1	44.1	60.1	21.1	17.3	38.5	1.4	100.0
학생	(182)	10.0	35.8	45.8	26.6	26.5	53.1	1.1	100.0
무직/퇴직/기타	(71)	14.3	46.3	60.7	13.8	24.1	37.9	1.4	100.0
모름/무응답	(9)	11.3	33.2	44.6	22.2	22.1	44.3	11.1	100.0
<b>경제수준</b>									
상	(59)	13.7	27.0	40.8	23.6	35.6	59.2	0.0	100.0
중	(716)	14.4	37.2	51.6	26.8	20.9	47.7	0.7	100.0
하	(208)	21.8	40.1	61.9	14.0	22.2	36.2	1.9	100.0
모름/무응답	(17)	11.9	40.7	52.6	17.3	17.4	34.8	12.6	100.0
<b>종교</b>									
기독교	(306)	14.4	36.7	51.1	23.3	24.6	47.9	1.0	100.0
천주교	(129)	20.9	39.5	60.5	17.0	21.7	38.6	0.9	100.0
불교	(118)	15.9	32.4	48.3	30.6	21.1	51.7	0.0	100.0
기타종교	(7)	14.6	13.9	28.5	42.9	28.5	71.5	0.0	100.0
종교없음	(428)	15.5	38.4	54.0	24.2	20.2	44.4	1.6	100.0
모름/무응답	(12)	8.5	50.2	58.7	16.7	24.5	41.3	0.0	100.0
<b>혼인상태</b>									
미혼	(346)	11.3	34.0	45.4	29.5	24.6	54.1	0.6	100.0
기혼	(629)	18.0	38.6	56.6	21.3	20.9	42.1	1.3	100.0
이혼	(15)	33.3	53.3	86.5	7.0	6.5	13.5	0.0	100.0
모름/무응답	(9)	11.4	44.1	55.5	11.1	22.3	33.3	11.2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편	(545)	12.6	35.8	48.4	25.1	25.4	50.5	1.1	100.0
보통	(367)	17.0	38.8	55.7	24.6	18.6	43.1	1.1	100.0
좋은편	(84)	31.9	41.0	72.9	12.9	14.2	27.1	0.0	100.0
모름/무응답	(4)	25.4	24.5	49.9	0.0	25.2	25.2	24.9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편	(684)	13.3	35.9	49.2	23.7	26.5	50.2	0.6	100.0
보통	(261)	19.8	39.2	59.0	26.4	12.7	39.0	2.0	100.0
좋은편	(44)	31.9	45.5	77.4	13.5	9.0	22.6	0.0	100.0
모름/무응답	(11)	18.2	45.6	63.8	9.0	9.2	18.1	18.1	100.0

### 5) 동정적 인식 -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 〈표9〉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149)	14.9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213)	21.3
내 생각과 좀 다르다	(224)	22.4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397)	39.7
모름/무응답	(18)	1.8
합계	(1000)	100.0

#### 전체

-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라는 말에 대해, 14.9%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1.3%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36.2%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62.0%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고, 10대(45.6%) △종교없음(4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60대(67.9%) △기독교(73.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0〉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14.9</b>	<b>21.3</b>	<b>36.2</b>	<b>22.4</b>	<b>39.7</b>	<b>62.0</b>	<b>1.8</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24.8	20.8	45.6	27.2	25.8	53.0	1.4	100.0
20대	(226)	12.9	23.6	36.4	22.0	40.7	62.7	0.9	100.0
30대	(248)	16.0	22.1	38.0	21.2	39.6	60.8	1.2	100.0
40대	(220)	13.5	21.8	35.3	24.2	38.8	62.9	1.8	100.0
50대	(160)	12.3	19.9	32.3	19.8	44.3	64.1	3.7	100.0
60대 (60-65세)	(65)	15.8	13.0	28.8	22.3	45.6	67.9	3.3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20.3	20.5	40.8	22.9	33.1	55.9	3.3	100.0
고졸	(299)	16.0	21.1	37.1	21.7	37.8	59.5	3.4	100.0
대졸 이상	(563)	12.9	21.6	34.5	22.8	42.3	65.2	0.3	100.0
모름 / 무응답	(19)	21.2	20.7	42.0	16.0	31.7	47.7	10.4	100.0
<b>월가소득</b>									
99만원 이하	(33)	21.6	9.0	30.6	20.7	45.5	66.2	3.2	100.0
100 - 199만원	(128)	18.1	22.1	40.1	17.4	40.1	57.5	2.3	100.0
200 - 299만원	(188)	15.9	23.3	39.2	23.7	35.6	59.2	1.6	100.0
300 - 399만원	(217)	17.8	21.7	39.5	20.3	39.7	60.1	0.4	100.0
400 - 499만원	(130)	12.9	20.1	33.0	25.4	41.6	67.0	0.0	100.0
500만원 이상	(187)	9.6	19.8	29.4	24.0	46.0	70.1	0.5	100.0
모름 / 무응답	(117)	12.8	23.9	36.7	24.0	31.6	55.6	7.6	100.0
<b>종교</b>									
기독교	(306)	12.6	13.0	25.6	21.8	51.3	73.1	1.3	100.0
천주교	(129)	15.4	18.4	33.8	19.5	45.0	64.5	1.7	100.0
불교	(118)	17.6	19.4	37.0	25.5	35.8	61.3	1.7	100.0
기타종교	(7)	28.5	29.0	57.6	13.9	28.5	42.4	0.0	100.0
종교없음	(428)	14.8	28.7	43.5	23.3	31.1	54.5	2.1	100.0
모름 / 무응답	(12)	34.1	16.4	50.5	8.4	32.8	41.2	8.3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 편	(684)	13.6	20.5	34.0	21.6	42.8	64.4	1.6	100.0
보통	(261)	16.4	23.1	39.5	26.8	32.2	59.0	1.6	100.0
좋지 않은 편	(44)	25.2	26.7	52.0	11.7	34.1	45.8	2.3	100.0
모름 / 무응답	(11)	18.2	8.9	27.1	9.4	45.5	54.9	18.0	100.0

## 6) 동정적 인식 -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1〉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148)	14.8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177)	17.7
내 생각과 좀 다르다	(279)	27.9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364)	36.4
모름/무응답	(31)	3.1
합계	(1000)	100.0

## 전체

-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라는 말에 대해, 14.8%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7.7%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32.5%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64.3%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고, △10대(47.0%) △학생(41.0%) △종교없음(40.4%) △미혼자(3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40대(72.8%) △생산/기술/노무직(76.7%) △기독교(76.2%) △기혼자(68.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2〉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14.8</b>	<b>17.7</b>	<b>32.5</b>	<b>27.9</b>	<b>36.4</b>	<b>64.3</b>	<b>3.1</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22.3	24.7	47.0	23.2	23.5	46.7	6.3	100.0
20대 (20-29세)	(226)	17.6	19.5	37.1	23.5	38.1	61.6	1.3	100.0
30대 (30-39세)	(248)	17.6	16.8	34.4	28.1	36.3	64.4	1.2	100.0
40대 (40-49세)	(220)	11.8	12.7	24.5	33.0	39.7	72.8	2.8	100.0
50대 (50-59세)	(160)	8.1	20.5	28.6	32.8	35.6	68.4	3.0	100.0
60대 (60-65세)	(65)	11.2	16.6	27.8	19.4	38.3	57.7	14.5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13.9	19.2	33.2	30.8	36.0	66.8	0.0	100.0
자영업	(164)	13.3	16.4	29.7	26.9	41.6	68.4	1.9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15.8	11.9	27.7	31.4	38.2	69.7	2.7	100.0
생산/기술/노무	(51)	11.5	6.0	17.5	33.6	43.2	76.7	5.8	100.0
주부	(224)	11.1	18.8	29.8	31.5	34.2	65.6	4.5	100.0
학생	(182)	19.9	21.1	41.0	20.9	34.7	55.7	3.4	100.0
무직/퇴직/기타	(71)	18.6	18.5	37.1	21.1	33.4	54.5	8.4	100.0
모름/무응답	(9)	33.1	22.4	55.5	22.1	11.2	33.4	11.1	100.0
<b>경제수준</b>									
상	(59)	11.9	15.2	27.0	22.1	49.1	71.2	1.7	100.0
중	(716)	14.9	16.4	31.3	30.5	36.1	66.6	2.1	100.0
하	(208)	14.9	22.8	37.7	20.6	35.3	55.9	6.4	100.0
모름/무응답	(17)	17.5	23.3	40.8	30.0	17.6	47.6	11.7	100.0
<b>종교</b>									
기독교	(306)	9.4	11.7	21.1	28.2	48.0	76.2	2.6	100.0
천주교	(129)	13.8	19.5	33.4	30.1	32.3	62.5	4.2	100.0
불교	(118)	11.7	17.0	28.6	34.7	35.8	70.5	0.9	100.0
기타종교	(7)	43.8	27.7	71.5	0.0	28.5	28.5	0.0	100.0
종교없음	(428)	19.0	21.4	40.4	26.0	30.2	56.2	3.5	100.0
모름/무응답	(12)	25.0	25.5	50.5	16.7	16.3	33.0	16.4	100.0
<b>혼인상태</b>									
미혼	(346)	19.1	19.4	38.5	24.0	35.5	59.5	2.0	100.0
기혼	(629)	12.0	16.7	28.7	30.4	37.8	68.2	3.0	100.0
기타	(15)	20.1	32.7	52.8	20.0	13.2	33.2	14.0	100.0
모름/무응답	(9)	33.3	0.0	33.3	22.3	11.3	33.6	33.1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편	(545)	14.3	16.9	31.2	26.1	40.2	66.2	2.6	100.0
보통	(367)	14.0	19.5	33.5	30.9	32.0	62.9	3.6	100.0
좋지 않은편	(84)	20.8	16.5	37.4	28.3	32.0	60.3	2.3	100.0
모름/무응답	(4)	25.4	0.0	25.4	0.0	25.2	25.2	49.5	100.0

## 기 긍정적 인식 -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3〉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42)	4.2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45)	4.5
내 생각과 좀 다르다	(188)	18.8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713)	71.3
모름/무응답	(12)	1.2
합계	(1000)	100.0

## 전체

-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 4.2%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5%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7%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90.1%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고, △60대(11.4%) △강남3구 지역(11.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20대(9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4〉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4.2</b>	<b>4.5</b>	<b>8.7</b>	<b>18.8</b>	<b>71.3</b>	<b>90.1</b>	<b>1.2</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2.4	7.5	9.9	18.6	70.2	88.8	1.3	100.0
20대	(226)	1.7	4.5	6.2	14.1	79.3	93.4	0.4	100.0
30대	(248)	4.0	4.4	8.4	22.1	68.8	90.8	0.8	100.0
40대	(220)	5.9	4.1	10.1	20.7	69.3	89.9	0.0	100.0
50대	(160)	5.7	3.7	9.4	21.2	67.0	88.2	2.5	100.0
60대 (60-65세)	(65)	6.3	5.1	11.4	10.0	72.4	82.4	6.2	100.0
<b>거주지역</b>									
도심 / 서북	(168)	4.1	3.6	7.7	16.5	74.7	91.2	1.1	100.0
동북부지역	(324)	3.4	4.9	8.3	20.3	71.4	91.7	0.0	100.0
남부지역	(350)	3.8	4.7	8.5	16.8	72.1	88.9	2.6	100.0
강남3구	(158)	6.9	4.4	11.3	22.4	65.7	88.1	0.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5.9	6.0	12.0	20.5	64.2	84.7	3.4	100.0
고졸	(299)	4.7	7.1	11.8	21.3	65.5	86.8	1.4	100.0
대제이상	(563)	3.5	3.0	6.5	17.1	76.0	93.1	0.3	100.0
모름 / 무응답	(19)	5.4	0.0	5.4	15.8	68.2	84.1	10.6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 편	(545)	4.2	4.1	8.3	17.0	74.1	91.2	0.5	100.0
보통	(367)	3.5	5.0	8.5	22.2	68.1	90.3	1.1	100.0
좋지 않은 편	(84)	7.0	5.8	12.8	15.7	68.0	83.7	3.5	100.0
모름 / 무응답	(4)	0.0	0.0	0.0	0.0	49.7	49.7	50.3	100.0

## 8) 심각성 인식 -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5〉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410)	41.0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367)	36.7
내 생각과 좀 다르다	(157)	15.7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41)	4.1
모름/무응답	(25)	2.5
합계	(1000)	100.0

## 전체

-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라는 말에 대해, 41.0%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6.7%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77.7%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19.7%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라는 말에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여자(83.3%) △40대(85.0%) △강남3구지역(84.0%) △주부(85.7%) △기혼자(8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남자(25.2%) △20대(29.3%) △도심·서북지역(25.1%) △미혼자(27.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6〉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41.0</b>	<b>36.7</b>	<b>77.7</b>	<b>15.7</b>	<b>4.1</b>	<b>19.7</b>	<b>2.5</b>	<b>100.0</b>
<b>성별</b>									
남자	(500)	35.9	36.3	72.2	19.0	6.2	25.2	2.6	100.0
여자	(500)	46.1	37.2	83.3	12.3	2.0	14.3	2.4	100.0
<b>연령</b>									
10대 (15-19세)	(82)	39.9	41.8	81.6	9.6	5.0	14.7	3.7	100.0
20대	(226)	33.6	35.8	69.4	23.1	6.2	29.3	1.3	100.0
30대	(248)	40.0	38.4	78.4	15.2	4.0	19.2	2.4	100.0
40대	(220)	45.2	39.8	85.0	10.9	1.8	12.7	2.3	100.0
50대	(160)	44.2	30.4	74.6	16.7	5.0	21.6	3.7	100.0
60대 (60-65세)	(65)	50.1	32.7	82.7	12.5	1.4	13.9	3.4	100.0
<b>거주지역</b>									
도심 / 서북	(168)	35.9	37.3	73.2	19.7	5.4	25.1	1.8	100.0
동북부지역	(324)	38.8	35.3	74.2	17.2	5.8	23.0	2.8	100.0
남부지역	(350)	45.4	35.1	80.4	14.1	2.0	16.1	3.4	100.0
강남3구	(158)	41.2	42.8	84.0	11.6	3.8	15.4	0.7	100.0
<b>학력</b>									
중졸이하	(119)	47.5	34.9	82.4	9.9	3.4	13.3	4.3	100.0
고졸	(299)	45.3	36.2	81.4	13.6	2.6	16.2	2.3	100.0
대재이상	(563)	37.7	37.8	75.5	17.9	4.8	22.7	1.8	100.0
모름 / 무응답	(19)	31.8	26.1	57.9	15.8	10.7	26.5	15.6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39.9	39.9	79.8	14.3	4.5	18.8	1.4	100.0
자영업	(164)	44.2	30.4	74.5	17.0	5.4	22.5	3.0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39.4	39.5	78.9	14.6	3.9	18.5	2.6	100.0
생산/기술/노무	(51)	33.7	39.1	72.8	23.3	3.9	27.2	0.0	100.0
주부	(224)	46.1	39.7	85.7	9.8	0.9	10.7	3.6	100.0
학생	(182)	36.7	36.9	73.6	18.7	6.1	24.8	1.6	100.0
무직/퇴직/기타	(71)	40.0	29.4	69.5	23.6	4.0	27.6	3.0	100.0
모름 / 무응답	(9)	33.4	21.9	55.3	11.2	11.2	22.4	22.3	100.0
<b>혼인상태</b>									
미혼	(346)	33.1	37.8	70.9	20.8	6.6	27.4	1.7	100.0
기혼	(629)	45.2	36.3	81.5	13.4	2.7	16.1	2.4	100.0
기타	(15)	53.0	40.0	93.0	0.0	0.0	0.0	7.0	100.0
모름 / 무응답	(9)	33.3	22.0	55.3	0.0	11.3	11.3	33.4	100.0

## 9) 예방가능성 인식 -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7〉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563)	56.3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314)	31.4
내 생각과 좀 다르다	(57)	5.7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38)	3.8
모름/무응답	(28)	2.8
합계	(1000)	100.0

## 전체

-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대해, 56.3%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4%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7.6%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9.5%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주부(9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10대(14.8%) △학생(13.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8〉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은 상담이나 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56.3</b>	<b>31.4</b>	<b>87.6</b>	<b>5.7</b>	<b>3.8</b>	<b>9.5</b>	<b>2.8</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49.7	31.7	81.4	4.9	9.9	14.8	3.8	100.0
20대	(226)	54.7	30.7	85.5	7.9	4.4	12.3	2.2	100.0
30대	(248)	59.9	30.9	90.8	5.2	3.2	8.4	0.8	100.0
40대	(220)	62.7	27.7	90.4	5.9	0.5	6.4	3.2	100.0
50대	(160)	50.8	38.6	89.4	3.1	4.4	7.5	3.1	100.0
60대 (60-65세)	(65)	47.8	29.5	77.2	6.7	6.2	12.9	9.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52.1	31.5	83.6	5.2	8.6	13.8	2.6	100.0
고졸	(299)	56.8	30.8	87.6	5.4	3.9	9.3	3.1	100.0
대재이상	(563)	57.9	31.4	89.3	6.2	2.5	8.7	2.0	100.0
모름/무응답	(19)	26.1	37.1	63.2	0.0	10.5	10.5	26.4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54.2	34.6	88.8	7.6	2.2	9.8	1.3	100.0
자영업	(164)	58.5	31.1	89.6	4.4	3.6	7.9	2.5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61.5	26.6	88.1	4.0	5.3	9.3	2.6	100.0
생산/기술/노무	(51)	55.0	29.4	84.4	9.7	0.0	9.7	6.0	100.0
주부	(224)	60.5	31.7	92.2	2.7	2.7	5.4	2.3	100.0
학생	(182)	51.4	32.0	83.4	7.1	6.7	13.8	2.8	100.0
무직/퇴직/기타	(71)	55.0	25.3	80.3	8.5	5.5	14.0	5.7	100.0
모름/무응답	(9)	32.8	33.5	66.3	0.0	11.2	11.2	22.5	100.0

## 10) 관심 수준 -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문] 자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 자신의 생각과 ‘아주 같다’, ‘대체로 같은 편이다’, ‘좀 다르다’, ‘아주 다르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19〉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내 생각과 아주 같다	(184)	18.4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	(319)	31.9
내 생각과 좀 다르다	(293)	29.3
내 생각과 아주 다르다	(193)	19.3
모름/무응답	(10)	1.0
합계	(1000)	100.0

## 전체

-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8.4%가 ‘내 생각과 아주 같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9%가 ‘내 생각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50.4%가 내 생각과 같다고 응답한 반면, 48.6%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라는 말이 내 생각과 같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정신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높고, △여자(59.5%) △40대(55.6%) 및 60대(58.3%) △주부(64.1%) △기혼자(5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정신건강이 좋을수록 높고, △남자(58.0%) △10대(53.9%) 및 20대(54.4%)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59.5%) △미혼자(5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표20〉 자살에 대한 인식 - 자살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단위 : %)

	사례수 (명)	①내생각 과아주같 다	②내생각 과대체로 같은편이 다	①+②	③내생각 과좀다르 다	④내생각 과아주다 르다	③+④	모름	계
<b>전체</b>	<b>(1000)</b>	<b>18.4</b>	<b>31.9</b>	<b>50.4</b>	<b>29.3</b>	<b>19.3</b>	<b>48.6</b>	<b>1.0</b>	<b>100.0</b>
<b>성별</b>									
남자	(500)	16.6	24.6	41.2	32.7	25.3	58.0	0.8	100.0
여자	(500)	20.3	39.3	59.5	26.0	13.3	39.3	1.2	100.0
<b>연령</b>									
10대 (15-19세)	(82)	18.9	27.2	46.1	29.4	24.5	53.9	0.0	100.0
20대	(226)	18.1	26.6	44.7	30.1	24.3	54.4	0.9	100.0
30대	(248)	18.4	29.5	47.9	35.0	16.8	51.7	0.4	100.0
40대	(220)	19.5	36.0	55.6	27.6	16.4	44.0	0.4	100.0
50대	(160)	17.4	36.5	53.9	27.4	15.6	42.9	3.1	100.0
60대 (60-65세)	(65)	17.7	40.5	58.3	15.9	24.2	40.1	1.7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23.9	40.8	64.6	19.3	14.4	33.7	1.7	100.0
고졸	(299)	20.4	34.1	54.5	27.0	18.1	45.1	0.4	100.0
대재이상	(563)	16.5	29.4	45.9	32.4	21.1	53.5	0.5	100.0
모름 / 무응답	(19)	10.6	15.7	26.3	37.0	15.5	52.6	21.2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15.3	25.2	40.5	37.1	22.5	59.5	0.0	100.0
자영업	(164)	19.6	27.4	47.0	28.6	24.5	53.0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21.0	32.9	53.9	26.3	18.4	44.7	1.4	100.0
생산/기술/노무	(51)	13.8	43.0	56.8	23.6	17.8	41.3	1.8	100.0
주부	(224)	20.3	43.8	64.1	25.3	9.7	35.0	0.9	100.0
학생	(182)	19.0	28.8	47.8	29.1	23.1	52.2	0.0	100.0
무직/퇴직/기타	(71)	18.5	27.6	46.1	29.7	18.4	48.1	5.8	100.0
모름 / 무응답	(9)	22.5	11.0	33.5	11.2	33.0	44.2	22.3	100.0
<b>경제수준</b>									
상층	(59)	18.5	25.4	43.9	30.5	25.6	56.1	0.0	100.0
중하	(716)	17.8	31.5	49.3	31.8	18.3	50.2	0.6	100.0
모름 / 무응답	(208)	21.1	35.9	57.0	22.3	19.2	41.5	1.5	100.0
모름 / 무응답	(17)	11.9	24.1	36.0	5.9	40.6	46.5	17.6	100.0
<b>혼인상태</b>									
미혼	(346)	16.3	24.6	40.9	33.4	24.8	58.3	0.9	100.0
기혼	(629)	19.4	36.1	55.4	27.9	16.0	43.9	0.6	100.0
타	(15)	32.7	33.4	66.1	13.3	20.6	33.9	0.0	100.0
모름 / 무응답	(9)	11.4	22.0	33.4	0.0	33.2	33.2	33.4	100.0
<b>신체건강상태</b>									
좋은 편	(545)	16.5	31.7	48.1	30.7	20.7	51.5	0.4	100.0
보통	(367)	18.5	33.1	51.7	28.9	18.0	46.9	1.4	100.0
좋지 않은 편	(84)	30.3	29.8	60.0	23.6	15.2	38.8	1.2	100.0
모름 / 무응답	(4)	25.4	0.0	25.4	0.0	25.2	25.2	49.5	100.0
<b>정신건강상태</b>									
좋은 편	(684)	16.6	31.0	47.6	31.6	20.3	51.9	0.5	100.0
보통	(261)	20.2	34.9	55.2	27.2	16.1	43.3	1.5	100.0
좋지 않은 편	(44)	36.2	27.0	63.2	13.8	20.6	34.4	2.4	100.0
모름 / 무응답	(11)	18.2	36.3	54.5	0.0	27.5	27.5	18.0	100.0

## 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1) 사회적 요인 - 경제적인 문제

문)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표2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경제적인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70)	7.0
고위험군	(167)	16.7
위험군	(419)	41.9
저위험군	(345)	34.5
합계	(1000)	100.0

-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7.0%임.
- 이 밖에, 고위험군 16.7%, 위험군 41.9%, 저위험군 34.5%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초고위험군은 특히 △60-65세(19.0%) △월가구소득 99만원 이하(26.9%)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응답자(22.7%)에서 그 비율이 높음.

〈표2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경제적인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b>전체</b>	<b>(1000)</b>	<b>7.0</b>	<b>16.7</b>	<b>41.9</b>	<b>34.5</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0.0	9.2	32.1	58.8	100.0
20대	(226)	2.2	15.9	43.0	38.9	100.0
30대	(248)	4.4	14.0	49.7	31.9	100.0
40대	(220)	8.6	19.1	42.8	29.5	100.0
50대	(160)	14.2	20.6	37.7	27.5	100.0
60대 (60-65세)	(65)	19.0	20.8	27.4	32.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11.8	25.3	29.7	33.1	100.0
고졸	(299)	8.3	19.5	42.5	29.7	100.0
대재이상	(563)	5.0	12.8	45.0	37.2	100.0
모름 / 무응답	(19)	15.7	31.8	15.7	36.9	100.0
<b>월가구소득</b>						
99 만 원 이 하	(33)	26.9	27.4	36.5	9.1	100.0
100 - 199 만 원	(128)	11.1	29.8	41.8	17.3	100.0
200 - 299 만 원	(188)	6.8	21.9	43.5	27.9	100.0
300 - 399 만 원	(217)	5.5	17.6	45.4	31.5	100.0
400 - 499 만 원	(130)	6.1	9.2	49.2	35.5	100.0
500 만 원 이상	(187)	2.7	9.1	38.0	50.2	100.0
모름 / 무응답	(117)	7.7	9.5	32.5	50.4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 편	(545)	4.2	14.0	40.9	40.8	100.0
보통	(367)	9.3	17.4	45.3	28.0	100.0
좋지 않은 편	(84)	14.0	29.7	35.5	20.8	100.0
모름 / 무응답	(4)	25.4	25.2	0.0	49.5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 편	(684)	4.2	14.3	42.3	39.2	100.0
보통	(261)	11.1	20.5	44.1	24.2	100.0
좋지 않은 편	(44)	22.7	29.9	27.5	20.0	100.0
모름 / 무응답	(11)	18.1	18.1	18.9	44.9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70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18.4%(13명)에 불과하며, 81.6%(57명)은 경험이 없음.
- 13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으로는 가족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료(38.8%), 친구(31.3%), 정신과의사(15.6%)의 순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57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3%, 없다는 응답이 50.7%임.

## 2) 사회적 요인 -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 〈표23〉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66)	6.6
고위험군	(124)	12.4
위험군	(349)	34.9
저위험군	(460)	46.0
합계	(1000)	100.0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6.6%임.
- 이 밖에, 고위험군 12.4%, 위험군 34.9%, 저위험군 46.0%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초고위험군은 특히 △50대(14.3%) △자영업자(15.7%) △월가 99만원이하(11.6%)에서 그 비율이 높음. 고위험군의 경우는 △남자(17.5%) △40대(16.0%) △영업/판매/서비스직 종사자(23.7%)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표24〉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b>전체</b>	<b>(1000)</b>	<b>6.6</b>	<b>12.4</b>	<b>34.9</b>	<b>46.0</b>	<b>100.0</b>
<b>성별</b>						
남자	(500)	6.8	17.5	37.7	38.0	100.0
여성	(500)	6.3	7.4	32.2	54.1	100.0
<b>연령</b>						
10대 (15-19세)	(82)	0.0	2.7	9.6	87.7	100.0
20대	(226)	3.9	10.7	35.8	49.6	100.0
30대	(248)	3.2	14.8	42.4	39.5	100.0
40대	(220)	9.1	16.0	37.7	37.3	100.0
50대	(160)	14.3	13.9	33.6	38.3	100.0
60대 (60-65세)	(65)	9.1	6.4	29.3	55.2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3.6	15.8	43.7	36.8	100.0
자영업	(164)	15.7	17.8	45.9	20.6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6.6	23.7	53.9	15.8	100.0
생산/기술/노무	(51)	5.9	15.7	43.2	35.2	100.0
주부	(224)	5.4	7.5	25.7	61.4	100.0
학생	(182)	1.1	5.0	18.1	75.8	100.0
무직/퇴직/기타	(71)	11.0	9.7	28.1	51.1	100.0
모름 / 무응답	(9)	22.5	10.9	33.4	33.2	100.0
<b>월가구소득</b>						
99 만 원 이 하	(33)	11.6	12.0	36.6	39.8	100.0
100 - 199 만 원	(128)	10.1	14.2	34.8	40.8	100.0
200 - 299 만 원	(188)	7.9	13.8	39.6	38.7	100.0
300 - 399 만 원	(217)	4.6	13.0	36.7	45.6	100.0
400 - 499 만 원	(130)	5.4	9.9	39.1	45.7	100.0
500 만 원 이상	(187)	4.8	13.5	36.3	45.3	100.0
모름 / 무응답	(117)	6.8	8.5	17.1	67.6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 편	(545)	4.6	9.4	34.7	51.2	100.0
보통	(367)	7.1	15.5	38.5	38.9	100.0
좋지 않은 편	(84)	16.2	19.1	21.1	43.5	100.0
모름 / 무응답	(4)	25.4	0.0	25.2	49.5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 편	(684)	4.4	11.0	35.5	49.1	100.0
보통	(261)	9.1	15.3	35.6	40.0	100.0
좋지 않은 편	(44)	22.9	18.2	24.8	34.1	100.0
모름 / 무응답	(11)	18.1	9.5	27.6	44.9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66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16.4%(11명)에 불과하며, 83.6%(55명)은 경험이 없음.
- 11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으로는 친구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26.6%), 동료(18.5%), 정신과의사(18.4%)의 순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55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8.9%, 없다는 응답이 51.1%임.

## 3) 사회적 요인 - 학교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

-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표25〉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학교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24)	2.4
고위험군	(88)	8.8
위험군	(208)	20.8
저위험군	(680)	68.0
합계	(1000)	100.0

-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학교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2.4%임.
- 이 밖에, 고위험군 8.8%, 위험군 20.8%, 저위험군 68.0%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이나 10대-20대에서, 학생들에게서,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위험군은 특히 △10대(23.6%) △학생(27.7%)에서 그 비율이 높음.

〈표26〉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학교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b>전체</b>	<b>(1000)</b>	<b>2.4</b>	<b>8.8</b>	<b>20.8</b>	<b>68.0</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b>7.0</b>	<b>23.6</b>	41.9	27.5	100.0
20대	(226)	2.6	<b>16.4</b>	30.5	50.4	100.0
30대	(248)	2.0	3.2	15.1	79.6	100.0
40대	(220)	0.4	7.7	21.8	70.0	100.0
50대	(160)	3.1	3.7	8.1	85.0	100.0
60대 (60-65세)	(65)	1.5	1.5	9.6	87.3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1.8	2.7	18.9	76.6	100.0
자영업	(164)	1.2	4.2	15.2	79.3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1.3	5.2	15.7	77.7	100.0
생산/기술/노무	(51)	3.9	4.0	17.4	74.8	100.0
주부	(224)	0.9	4.8	16.0	78.3	100.0
학생	(182)	<b>5.4</b>	<b>27.7</b>	40.9	26.1	100.0
무직/퇴직/기타	(71)	2.6	9.9	12.7	74.9	100.0
모름 / 무응답	(9)	11.1	10.9	10.9	67.1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 편	(545)	1.8	10.0	22.0	66.2	100.0
보통	(367)	2.4	7.3	21.0	69.3	100.0
좋지 않은 편	(84)	5.7	8.3	13.2	72.8	100.0
모름 / 무응답	(4)	0.0	0.0	0.0	100.0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 편	(684)	1.6	8.4	21.0	69.0	100.0
보통	(261)	2.3	9.5	22.7	65.5	100.0
좋지 않은 편	(44)	15.4	11.6	11.5	61.5	100.0
모름 / 무응답	(11)	0.0	8.9	0.0	91.1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학교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24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21.1%(5명)에 불과하며, 78.9%(19명)은 경험이 없음.
- 5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으로는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39.3%), 정신과의사(20.3%), 친구(19.7%)의 순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19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7.0%, 없다는 응답이 43.0%임.

## 4) 관계적 요인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문제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 &lt;표27&gt;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48)	4.8
고위험군	(69)	6.9
위험군	(265)	26.5
저위험군	(618)	61.8
합계	(1000)	100.0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4.8%임.
- 이 밖에, 고위험군 6.9%, 위험군 26.5%, 저위험군 61.8%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위험군은 특히 △40대(10.0%)에서 그 비율이 높음.

〈표28〉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b>전체</b>	<b>(1000)</b>	<b>4.8</b>	<b>6.9</b>	<b>26.5</b>	<b>61.8</b>	<b>100.0</b>
<b>연령</b>						
10대 (15~19세)	(82)	1.2	2.6	20.0	76.2	100.0
20대	(226)	2.3	5.7	19.0	73.0	100.0
30대	(248)	3.2	6.0	31.2	59.6	100.0
40대	(220)	7.2	<b>10.0</b>	31.3	51.5	100.0
50대	(160)	7.4	6.8	27.9	57.9	100.0
60대 (60~65세)	(65)	<b>9.8</b>	9.5	23.0	57.7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8.4	8.4	28.8	54.3	100.0
고졸	(299)	6.7	5.3	31.2	56.8	100.0
대재이상	(563)	3.2	7.6	23.4	65.8	100.0
모름 / 무응답	(19)	0.0	0.0	31.4	68.6	100.0
<b>직업</b>						
사무/관리/전문직	(223)	0.9	5.4	20.6	73.1	100.0
자영업	(164)	4.3	6.6	30.5	58.7	100.0
영업/판매/서비스	(76)	4.1	7.8	36.9	51.3	100.0
생산/기술/노무	(51)	9.6	5.9	31.7	52.7	100.0
주부	(224)	<b>10.7</b>	<b>11.5</b>	31.5	46.2	100.0
학생	(182)	2.8	3.9	17.8	75.5	100.0
무직/퇴직/기타	(71)	2.8	5.5	28.1	63.5	100.0
모름 / 무응답	(9)	0.0	0.0	22.1	77.9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 편	(545)	3.0	7.5	23.5	66.0	100.0
보통	(367)	5.2	6.0	31.1	57.7	100.0
좋지 않은 편	(84)	15.4	6.9	27.1	50.6	100.0
모름 / 무응답	(4)	0.0	0.0	0.0	100.0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 편	(684)	2.6	6.9	23.6	66.9	100.0
보통	(261)	6.9	6.8	33.1	53.1	100.0
좋지 않은 편	(44)	27.6	8.9	34.2	29.3	100.0
모름 / 무응답	(11)	0.0	0.0	18.4	81.6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48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30.5%(15명)에 불과하며, 69.5%(33명)은 경험이 없음.
- 15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으로는 가족이라는 응답이 2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구(26.8%), 정신과의사(20.0%), 지역사회 정신보건관련 간호사나 사회복지사(13.5%)의 순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33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2.2%, 없다는 응답이 17.8%임.

## 5) 관계적 요인 -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표29〉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8)	0.8
고위험군	(16)	1.6
위험군	(108)	10.8
저위험군	(868)	86.8
합계	(1000)	100.0

-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0.8%임.
- 이 밖에, 고위험군 1.6%, 위험군 10.8%, 저위험군 86.8%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전체적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초고위험군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월소득 99만이하층(3.4%)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30〉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 전 체 ■	(1000)	0.8	1.6	10.8	86.8	100.0
월 가 구 소 득						
99 만 원 이 하	(33)	3.4	0.0	15.4	81.2	100.0
100 - 199 만 원	(128)	1.6	0.7	16.7	81.0	100.0
200 - 299 만 원	(188)	1.1	2.6	10.5	85.8	100.0
300 - 399 만 원	(217)	0.0	0.9	13.3	85.8	100.0
400 - 499 만 원	(130)	0.0	1.6	11.5	86.9	100.0
500 만 원 이상	(187)	0.0	1.6	7.0	91.4	100.0
모름 / 무응답	(117)	2.6	2.5	4.4	90.5	100.0
정신적 건강 상태						
좋은 편	(684)	0.5	1.3	9.1	89.1	100.0
보통	(261)	0.8	2.6	14.5	82.1	100.0
좋지 않은 편	(44)	4.8	0.0	18.3	76.9	100.0
모름 / 무응답	(11)	9.3	0.0	0.0	90.7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8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12.2%(1명)에 불과하며, 87.8%(7명)은 경험이 없음.
- 1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은 정신과의사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7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6.5%, 없다는 응답이 43.5%임.

### 6) 관계적 요인 -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 문제

-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 <표3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13)	1.3
고위험군	(34)	3.4
위험군	(229)	22.9
저위험군	(724)	72.4
합계	(1000)	100.0

-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1.3%임.
- 이 밖에, 고위험군 3.4%, 위험군 22.9%, 저위험군 72.4%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고위험군은 특히 △월가구소득 100-199만원이하(7.9%)에서 그 비율이 높음.

## 〈표32〉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b>전체</b>	<b>(1000)</b>	<b>1.3</b>	<b>3.4</b>	<b>22.9</b>	<b>72.4</b>	<b>100.0</b>
<b>월 가구 소득</b>						
99 만 원 이 하	(33)	0.0	0.0	12.5	87.5	100.0
100 - 199 만 원	(128)	3.9	<b>7.9</b>	22.0	66.1	100.0
200 - 299 만 원	(188)	1.6	3.2	24.9	70.4	100.0
300 - 399 만 원	(217)	0.0	2.3	22.6	75.1	100.0
400 - 499 만 원	(130)	1.5	5.4	21.4	71.7	100.0
500 만 원 이상	(187)	1.1	3.2	30.6	65.1	100.0
모름 / 무응답	(117)	0.9	0.0	13.8	85.3	100.0
<b>신체적 건강 상태</b>						
좋은 편	(545)	1.3	2.0	21.5	75.2	100.0
보통	(367)	0.5	3.9	26.2	69.4	100.0
좋지 않은 편	(84)	<b>4.7</b>	<b>10.7</b>	17.8	66.8	100.0
모름 / 무응답	(4)	0.0	0.0	25.4	74.6	100.0
<b>정신적 건강 상태</b>						
좋은 편	(684)	0.9	2.7	22.8	73.7	100.0
보통	(261)	1.9	4.6	24.2	69.3	100.0
좋지 않은 편	(44)	4.6	6.8	18.5	70.1	100.0
모름 / 무응답	(11)	0.0	9.5	18.7	71.9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다른 사람들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13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30.9%(4명)에 불과하며, 69.1%(9명)은 경험이 없음.
- 4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으로는 가족, 동료, 정신과의사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9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4.7%, 없다는 응답이 45.3%임.

## 7. 심리적 요인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표33〉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22)	2.2
고위험군	(53)	5.3
위험군	(291)	29.1
저위험군	(634)	63.4
합계	(1000)	100.0

-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2.2%임.
- 이 밖에, 고위험군 5.3%, 위험군 29.1%, 저위험군 63.4%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월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로 낮거나,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위험군은 특히 △10대(10.0%) △중졸이하(8.9%) 에서 그 비율이 높음.

〈표34〉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b>■ 전 체 ■</b>	<b>(1000)</b>	<b>2.2</b>	<b>5.3</b>	<b>29.1</b>	<b>63.4</b>	<b>100.0</b>
<b>연 령</b>						
10대 (15-19세)	(82)	1.4	<b>10.0</b>	22.0	66.6	100.0
20 대	(226)	1.3	4.4	29.2	65.1	100.0
30 대	(248)	2.8	6.4	26.4	64.4	100.0
40 대	(220)	2.3	4.6	30.4	62.7	100.0
50 대	(160)	3.1	5.0	29.6	62.3	100.0
60대 (60-65세)	(65)	1.5	1.5	42.0	55.1	100.0
<b>학 력</b>						
중 졸 이 하	(119)	4.3	<b>8.6</b>	31.9	55.2	100.0
고 졸	(299)	1.7	5.6	32.3	60.4	100.0
대 재 이 상	(563)	1.8	4.6	26.7	66.9	100.0
모름 / 무응답	(19)	10.4	0.0	31.6	58.0	100.0
<b>월 가 구 소 득</b>						
99 만 원 이 하	(33)	<b>5.9</b>	<b>8.9</b>	27.4	57.8	100.0
100 - 199 만 원	(128)	4.7	8.6	39.0	47.8	100.0
200 - 299 만 원	(188)	2.1	6.4	30.0	61.5	100.0
300 - 399 만 원	(217)	0.9	3.8	30.3	65.0	100.0
400 - 499 만 원	(130)	1.5	8.3	26.3	63.9	100.0
500 만 원 이상	(187)	1.1	2.2	21.3	75.5	100.0
모름 / 무응답	(117)	3.5	3.4	30.7	62.4	100.0
<b>신 체 적 건 강 상 태</b>						
좋 은 편	(545)	1.5	4.2	25.7	68.6	100.0
보 통	(367)	2.4	6.0	31.6	60.0	100.0
좋 지 않 은 편	(84)	4.7	9.4	41.3	44.6	100.0
모름 / 무응답	(4)	25.4	0.0	0.0	74.6	100.0
<b>정 신 적 건 강 상 태</b>						
좋 은 편	(684)	1.2	4.1	23.6	71.2	100.0
보 통	(261)	1.9	8.4	39.0	50.7	100.0
좋 지 않 은 편	(44)	<b>16.3</b>	7.0	52.2	24.6	100.0
모름 / 무응답	(11)	18.1	0.0	45.2	36.7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22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13.5%(3명)에 불과하며, 86.5%(19명)은 경험이 없음.
- 3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은 정신과 의사, 가족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19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8.7%, 없다는 응답이 31.3%임.

### 8) 심리적 요인 -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

-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 <표35>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13)	1.3
고위험군	(17)	1.7
위험군	(145)	14.5
저위험군	(825)	82.5
합계	(1000)	100.0

-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1.3%임.
- 이 밖에, 고위험군 1.7%, 위험군 14.5%, 저위험군 82.5%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위험군은 특히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6.3%)에서 그 비율이 높음.

## 〈표36〉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b>전체</b>	<b>(1000)</b>	<b>1.3</b>	<b>1.7</b>	<b>14.5</b>	<b>82.5</b>	<b>100.0</b>
<b>월 가구 소득</b>						
99 만 원 이 하	(33)	0.0	<b>6.3</b>	24.1	69.6	100.0
100 - 199 만 원	(128)	0.8	2.3	17.4	79.5	100.0
200 - 299 만 원	(188)	2.1	1.1	11.6	85.2	100.0
300 - 399 만 원	(217)	1.4	0.9	14.8	82.9	100.0
400 - 499 만 원	(130)	1.5	2.3	17.5	78.7	100.0
500 만 원 이상	(187)	0.6	1.6	16.6	81.3	100.0
모름 / 무응답	(117)	1.7	1.6	5.9	90.8	100.0
<b>신체적 건강 상태</b>						
좋은 편	(545)	0.4	1.6	11.2	86.8	100.0
보통	(367)	1.9	1.1	16.9	80.1	100.0
좋지 않은 편	(84)	3.6	4.8	26.0	65.6	100.0
모름 / 무응답	(4)	25.4	0.0	0.0	74.6	100.0
<b>정신적 건강 상태</b>						
좋은 편	(684)	0.7	1.5	10.6	87.1	100.0
보통	(261)	0.8	1.9	22.2	75.1	100.0
좋지 않은 편	(44)	<b>11.4</b>	2.2	27.4	58.9	100.0
모름 / 무응답	(11)	9.3	8.9	18.3	63.5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기분이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13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7.7%(1명)에 불과하며, 92.3%(12명)은 경험이 없음.
- 1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은 정신과의사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12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1.5%, 없다는 응답이 58.5%임.



## 9) 심리적 요인 -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문)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 〈표37〉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11)	1.1
고위험군	(12)	1.2
위험군	(129)	12.9
저위험군	(848)	84.8
합계	(1000)	100.0

- ※ 1) 초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① 응답자  
 고위험군 : 문1에 ① & 문2에 ②, ③, ④, ⑤ 응답자  
 위험군 : 문1에 ② 응답자,  
 저위험군 : 문1에 ③, ④, ⑤, ⑥ 응답자  
 2) 가중치로 인해 집단별 사례수의 합계가 전체 사례수와 다를 수 있음.

## 전 체

-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초고위험군은 1.1%임.
- 이 밖에, 고위험군 1.2%, 위험군 12.9%, 저위험군 84.8%로 스트레스 위험군을 분류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초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38〉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 전 체 ■	(1000)	1.1	1.2	12.9	84.8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45)	0.4	0.7	9.0	89.8	100.0
보통	(367)	0.8	1.6	14.7	82.8	100.0
좋지 않은 편	(84)	6.0	2.4	30.7	61.0	100.0
모름 / 무응답	(4)	25.4	0.0	0.0	74.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84)	0.3	0.6	8.5	90.6	100.0
보통	(261)	0.8	2.7	19.9	76.7	100.0
좋지 않은 편	(44)	14.2	2.3	38.4	45.1	100.0
모름 / 무응답	(11)	9.3	0.0	17.8	73.0	100.0

### 도움이나 상담 경험 및 의향

-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막막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11명의 응답자 중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는 53.9%(6명)이며, 46.1%(5명)은 경험이 없음.
- 6명이 받은 도움이나 상담 대상으로는 동료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직자(17.3%), 정신과의사(16.6%)의 순임.
- 반면,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5명은 향후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0.7%, 없다는 응답이 39.3%임.

## 3.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 경험

### 1)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및 자살 시도 경험

문] 귀하께서는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표39〉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24)	2.4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161)	16.1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318)	31.8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494)	49.4
모름/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 전 체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2.4%, 가끔 있다는 응답은 16.1%로 전체 응답자 중 18.5%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65세(28.6%) △고졸(23.7%)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응답자(43.6%)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응답자(7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0〉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단위 : %)

	사례수 (명)	①그런경 우가아주 많다	②그런경 우가가끔 있다	①+②	③그런경 우는별로 없다	④그런경 우는전혀 없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b>연령</b>	<b>(1000)</b>	<b>2.4</b>	<b>16.1</b>	<b>18.5</b>	<b>31.8</b>	<b>49.4</b>	<b>81.3</b>	<b>0.2</b>	<b>100.0</b>
10대 (15-19세)	(82)	3.7	17.2	20.9	25.7	52.0	77.7	1.4	100.0
20대 (20-29세)	(226)	1.7	16.3	18.0	28.8	53.2	82.0	0.0	100.0
30대 (30-39세)	(248)	1.6	12.1	13.7	36.7	49.6	86.3	0.0	100.0
40대 (40-49세)	(220)	3.6	14.6	18.2	34.1	47.6	81.8	0.0	100.0
50대 (50-59세)	(160)	2.5	19.2	21.7	32.9	44.8	77.7	0.6	100.0
60대 (60-65세)	(65)	1.5	27.1	<b>28.6</b>	21.3	50.2	71.4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19)	2.6	16.9	19.5	30.4	50.0	80.5	0.0	100.0
고졸	(299)	2.6	21.1	<b>23.7</b>	31.3	44.6	75.9	0.4	100.0
대졸 이상	(563)	2.1	13.1	15.3	32.5	52.3	84.7	0.0	100.0
모름 / 무응답	(19)	5.3	21.0	26.3	31.6	36.8	68.5	5.2	100.0
<b>월가구소득</b>									
99만원 이하	(33)	6.0	21.4	<b>27.4</b>	33.6	39.0	72.6	0.0	100.0
100 - 199만원	(128)	3.9	26.9	<b>30.8</b>	24.9	44.3	69.2	0.0	100.0
200 - 299만원	(188)	3.1	19.5	22.6	33.4	44.1	77.4	0.0	100.0
300 - 399만원	(217)	1.9	16.2	18.0	37.2	44.8	82.0	0.0	100.0
400 - 499만원	(130)	1.5	13.0	14.5	29.2	56.3	85.5	0.0	100.0
500만원 이상	(187)	1.7	9.1	10.7	33.2	56.1	89.3	0.0	100.0
모름 / 무응답	(117)	1.8	12.0	13.8	27.3	57.1	84.4	1.8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 편	(545)	1.1	12.9	14.0	29.1	56.8	86.0	0.0	100.0
보통	(367)	2.4	16.9	19.3	37.5	42.8	80.4	0.3	100.0
좋지 않은 편	(84)	9.4	34.2	<b>43.6</b>	26.0	30.3	56.4	0.0	100.0
모름 / 무응답	(4)	25.4	0.0	25.4	0.0	49.7	49.7	24.9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 편	(684)	1.2	10.7	11.9	31.1	57.0	88.1	0.0	100.0
보통	(261)	2.6	23.3	26.0	37.9	35.7	73.6	0.4	100.0
좋지 않은 편	(44)	18.3	56.9	<b>75.2</b>	13.5	11.3	24.8	0.0	100.0
모름 / 무응답	(11)	9.3	17.8	27.0	8.9	55.0	63.9	9.1	100.0

## 자살시도 경험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이 있다는 응답자 24명 중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명임.
-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7명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명이며, 5명은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다른 사람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2명은 그 대상이 선생님과 정신과의사라고 응답함.
  - 반면,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 5명 중 3명은 향후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2)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

〈표41〉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별 자살 생각 경험

스트레스 요인	위험군 유형	사례 수 (명)	자살 생각 경험율(%)
경제적인 문제	초고위험군	(70)	42.9
	고위험군	(167)	22.3
	위험군	(419)	17.5
	저위험군	(345)	13.1
사업이나 직장 문제	초고위험군	(66)	43.9
	고위험군	(124)	27.4
	위험군	(349)	16.9
	저위험군	(460)	13.8
학교성적이 나 진로 등의 문제	초고위험군	(24)	62.5
	고위험군	(88)	19.3
	위험군	(208)	17.4
	저위험군	(680)	17.2

전 체

- 사회적 요인에서 위험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교 성적이나 진로 등의 문제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으며,
  - 경제적인 문제에서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42.9%, 사업이나 직장 문제에서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43.9%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3) 관계적 스트레스 위험요인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

〈표42〉 관계적 스트레스 요인별 자살 생각 경험

스트레스 요인	위험군 유형	사례 수 (명)	자살 생각 경험율 (%)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 때문	초고위험군	(48)	50.0
	고위험군	(69)	18.8
	위험군	(265)	26.8
	저위험군	(618)	12.5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	초고위험군	(8)	62.5
	고위험군	(16)	31.3
	위험군	(108)	36.1
	저위험군	(868)	15.7
직장동료나 다른사람들 때문	초고위험군	(13)	61.5
	고위험군	(34)	38.2
	위험군	(229)	17.9
	저위험군	(724)	17.0

전 체

- 관계적 요인에서 위험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62.5%, 직장동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61.5%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높게 나타나며,
  - 가까운 가족 관계에 대해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50.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4) 심리적 스트레스 위험요인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

〈표43〉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별 자살 생각 경험

스트레스 요인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자살 생각 경험율 (%)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한 경우가 있다	초고위험군	(22)	63.6
	고위험군	(53)	50.9
	위험군	(291)	31.4
	저위험군	(634)	8.2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다	초고위험군	(13)	84.6
	고위험군	(17)	29.4
	위험군	(145)	33.8
	저위험군	(825)	14.6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하는 경우가있다	초고위험군	(11)	100.0
	고위험군	(12)	100.0
	위험군	(129)	63.6
	저위험군	(848)	9.5

## 전 체

- 심리적 요인에서 위험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특별한 이유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초고위험군인 응답자 중에서는 전원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우울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84.6%, 하루 종일 우울한 경우와 관련하여 초고위험군인 응답자는 63.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음.

## 4. 주변 사람들의 자살 인식

## 1) 지인 중 자살자 유무

문]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나요?

〈표44〉 지인 중 자살자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런 경우가 있다	(230)	23.0
그런 경우가 없다	(768)	76.8
모름/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 전 체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23.0%, 그런 경우가 없다는 응답이 76.8%로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 정도가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 건강상태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남.
  -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표45〉 지인 중 자살자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그런경우가있다	그런경우가없다	잘모르겠다	계
<b>연 령</b>	<b>(1000)</b>	<b>23.0</b>	<b>76.8</b>	<b>0.2</b>	<b>100.0</b>
10대 (15-19세)	(82)	8.7	91.3	0.0	100.0
20대	(226)	18.7	81.3	0.0	100.0
30대	(248)	25.2	74.8	0.0	100.0
40대	(220)	24.1	75.4	0.4	100.0
50대	(160)	29.9	69.5	0.6	100.0
60대 (60-65세)	(65)	27.4	72.6	0.0	100.0
<b>학 력</b>					
중졸 이하	(119)	26.5	73.5	0.0	100.0
고졸	(299)	23.7	76.3	0.0	100.0
대재이상	(563)	22.0	77.8	0.2	100.0
모름 / 무응답	(19)	21.0	73.8	5.2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편	(545)	20.9	79.1	0.0	100.0
보통	(367)	22.6	77.1	0.3	100.0
좋지 않은편	(84)	40.0	60.0	0.0	100.0
모름 / 무응답	(4)	0.0	75.1	24.9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편	(684)	22.8	77.2	0.0	100.0
보통	(261)	22.6	77.1	0.4	100.0
좋지 않은편	(44)	36.1	63.9	0.0	100.0
모름 / 무응답	(11)	0.0	90.9	9.1	100.0
<b>자살생각</b>					
있다	(185)	32.9	67.1	0.0	100.0
없다	(813)	20.9	79.0	0.1	100.0
모름 / 무응답	(2)	0.0	52.8	47.2	100.0

## 2 지인 중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 유무

문]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나요?

〈표46〉 지인 중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다	(120)	12.0
염려가 되는 사람이 없다	(865)	86.5
모름/무응답	(15)	1.5
합계	(1000)	100.0

## 전 체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12.0%, 염려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86.5%임.

## 응답자 특성별

- 지인 중에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응답자(18.9%)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응답자(36.6%) 등에서 높음.
-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표47〉 지인 중 자살이 염려되는 사람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염려가되는사람 있었다	염려가되는사람 없었다	잘모르겠다	계
<b>전체</b>	<b>(1000)</b>	<b>12.0</b>	<b>86.5</b>	<b>1.5</b>	<b>100.0</b>
<b>월 가구 소득</b>					
99 만 원 이 하	(33)	<b>24.5</b>	72.3	3.2	100.0
100 - 199 만 원	(128)	13.6	86.4	0.0	100.0
200 - 299 만 원	(188)	14.3	84.1	1.6	100.0
300 - 399 만 원	(217)	10.6	88.5	0.9	100.0
400 - 499 만 원	(130)	8.3	89.4	2.3	100.0
500 만 원 이상	(187)	13.5	85.9	0.5	100.0
모름 / 무응답	(117)	7.6	88.2	4.2	100.0
<b>경 제 수 준</b>					
상	(59)	8.6	91.4	0.0	100.0
중	(716)	11.3	87.6	1.1	100.0
하	(208)	16.1	82.0	1.9	100.0
모름 / 무응답	(17)	5.8	76.4	17.8	100.0
<b>신체적건강상태</b>					
좋은 편	(545)	11.6	87.6	0.7	100.0
보통	(367)	11.2	87.2	1.6	100.0
좋지 않은 편	(84)	<b>18.9</b>	78.8	2.3	100.0
모름 / 무응답	(4)	0.0	24.5	75.5	100.0
<b>정신적건강상태</b>					
좋은 편	(684)	11.1	87.7	1.2	100.0
보통	(261)	10.8	88.1	1.1	100.0
좋지 않은 편	(44)	<b>36.6</b>	61.0	2.4	100.0
모름 / 무응답	(11)	0.0	72.5	27.5	100.0
<b>자 살 생 각</b>					
있다	(185)	<b>25.0</b>	70.7	4.3	100.0
없다	(813)	9.1	90.2	0.7	100.0
모름 / 무응답	(2)	0.0	52.8	47.2	100.0

## 조사결과표

## 조사설문지